

경제주평

- 글로벌 경기, 회복세 빨라질 수도 있다
 - 최근 주요국 경기 동향과 시사점

목 차

■ 글로벌 경기, 회복세 빨라질 수도 있다

- 최근 주요국 경기 동향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주요국 경기 상황 점검	3
2-1. 미국	3
2-2. 유로존	6
2-3. 일본	9
2-4. 중국	12
2-5. 인도	15
2-6. 베트남	18
3. 시사점	21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 제 연 구 실

(미 국) : 이 형 석 연 구 위 원 (2072-6247, walden0230@hri.co.kr)

(유 로 존) : 신 지 영 선 임 연 구 원 (2072-6240, jyshin@hri.co.kr)

(일 본)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중 국) : 한 재 진 연 구 위 원 (2072-6225, hzz72@hri.co.kr)

(인 도) : 노 시 연 선 임 연 구 원 (2072-6248, syroh@hri.co.kr)

(베 트 남)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Executive Summary

□ 글로벌 경기, 회복세 빨라질 수도 있다

- 최근 주요국 경기 동향과 시사점

■ 개 요

고물가 및 통화긴축 여파로 글로벌 경기 하방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글로벌 PMI가 반등하면서 기존 예상보다 경기 회복세로 전환되는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 향방을 예고해주는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21년 5월 이후 19개월 연속 하락해 글로벌 경기 하방 압력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단, 지난해 6월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던 글로벌 종합 PMI가 올해 1월 전월대비 1.6p 상승한 49.8p를 기록하면서 향후 경기 반등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도 포착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 완화와 인플레이 둔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의 리오프닝 정책과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으로 IMF가 세계 경제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경기 낙관론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으로 글로벌공급망압력지수(Global Supply Chain Pressure Index)는 2021년 12월 4.31p까지 급등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반전하면서 2023년 1월에는 0.95p까지 낮아졌다. 또한, 133개 국가 중 전월 대비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이 상승한 국가의 비중은 지난해 6월 85.6%에 달했으나, 12월에는 20.8%까지 낮아져 인플레이 정점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주요 전망기관인 World Bank와 UN은 지난 1월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종전 전망대비 1%p 이상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으나, IMF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기대 및 미국의 연착륙 가능성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을 2.9%로 종전 전망대비 0.2%p 상향 조정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글로벌 주요국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본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주요국 경기 상황 점검

① 미국 : 견조한 노동시장에 힘입어 경기 연착륙 가능성 상존

지난해 미국 경제는 고물가 압력에도 양호한 민간소비에 힘입어 주요 전망기관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고강도 통화긴축의 여파로 작년 말부터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민간소비 지출의 성장기여도(전기비연율 기준)는 매 분기 1%p 내외의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고정투자의 부진을 상쇄하였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2.1%를 기록해 주요 전망기관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 연준의 정책목표치(2%)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근원 서비스물가의 오름세도 지속하고 있다. 한편, 미 연준(Fed)의 고강도 긴축통화 정책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생산과 소비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미국 경제는 침체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 미국 경제는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경기침체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견조한 노동시장에 힘입어 연착륙 가능성도 상존한다.** 미국 경제는 실질금리(기준금리-소비자물가 상승률)가 양(+)으로 전환되는 올해 2분기부터 통화긴축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경기둔화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견조한 노동시장과 가계의 양호한 재무여건이 내수위축을 상쇄시킬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률은 1%를 상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② 유로존 : 경기 반등 기대감 속 역성장 모면

유로존 경제는 민간소비와 순수출이 악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경기 선행 및 동행지표가 반등하면서 실물 경기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2022년 3분기 2.3% 성장한 이후 4분기 1.9%를 기록하며 성장세 둔화 흐름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최근 경기체감지수 및 PMI 지수가 3개월 연속 개선세를 나타내면서 실물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내수 부문에서는 산업생산이 8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소비자신뢰지수가 4개월 연속 개선되면서 소비 반등 가능성도 기대된다. 한편, 대외부문에서는 수입의 수출 증가세 상회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3개월 연속 적자 규모가 축소되어 향후 개선이 기대된다. **2023년 유로존은 경기 반등이 기대되는 가운데 우려되었던 역성장은 모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유로존은 가장 큰 위험요인인 에너지 위기 및 고물가 리스크가 완화되어 역성장을 피하는 한편, 재정적자 확대 등의 하방 요인으로 인해 1% 미만의 제한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③ 일본 : 내수 회복 지속으로 1%대 중반 성장 전망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일본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일본 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를 보이며 성장세를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난 연말까지 경기선행지수와 경기동행지수 모두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는 있으나, 올해에는 임금 인상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의한 소비 확대, 경제 주체들의 심리 회복 등으로 1% 중반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춘투임금 인상률이 2.5%에 달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 진작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은 내수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단,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외수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통화정책 전환 시기가 지연되면서 외환 및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는 등 경기 하방 리스크도 상존한다.

④ 중국: 소비의 '펜트업 효과' 예상

2022년 중국 경제는 글로벌 수요 감소, 제로 코로나 정책 강행 등 대내외 하방압력으로 상반기 경기는 급감했으나, 하반기부터 경기 부양 정책으로 소폭 회복하는 등 완만한 "V"자형의 성장 양상을 보였다. 중국 소매판매의 30%를 차지하는 온라인 소비가 점차 회복되면서 2023년 중국 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GDP의 약 25~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은 2021년恒大(Evergrande) 사태 발생 이후 침체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경제의 하방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중국 경제는 상반기에 '펜트업 효과(Pent-up Effect)'에 따른 소비 반등이 예상되나,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 재확산, 부동산 회복 지연 등 하방 압력이 재차 발생하며 "역 U"자형 성장이 예상된다.

⑤ 인도 : 내수 중심의 안정적인 성장세

인도는 고물가, 고금리, 수출 부진 등의 여파로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었으나 전반적인 대내 여건의 개선 흐름이 나타나는 중이다. 2022년 3분기 인도 경제성장률은 6.3%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견조한 내수가 성장을 뒷받침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생산은 2022년 하반기 들어 둔화세를 이어가다 최근에 반등하였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식품 및 음료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최근 들어 비교적 빠르게 둔화하였다. 이와 같은 소비자물가 상승세의 둔화로 인도 중앙은행의 긴축기조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출입은 모두 빠르게 둔화한 가운데 무역수지는 적자 흐름을 지속하였다. 2023년 인도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방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인도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6% 수준으로 강한 내수가 수출 부진을 상쇄하며 세계 주요국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⑥ 베트남 : 경기부양책 등으로 6% 내외 수준의 성장 기대

지난해 베트남 경제는 기저효과, 코로나19 위기 안정화 및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의한 서비스업 회복 등으로 연간 8%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급반등했다. 2023년에도 베트남 경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대응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르는 내수 파급효과 등이 기대되면서 성장세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받은 기업과 개인에 대한 154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과 각종 인프라 투자 확대, 관광산업 육성 지원 등에 따르는 내수부양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단, 지난해 말부터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 현상의 지속은 물론 외환보유고 감소와 환율 불안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상존해 있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낮은 6% 내외 수준이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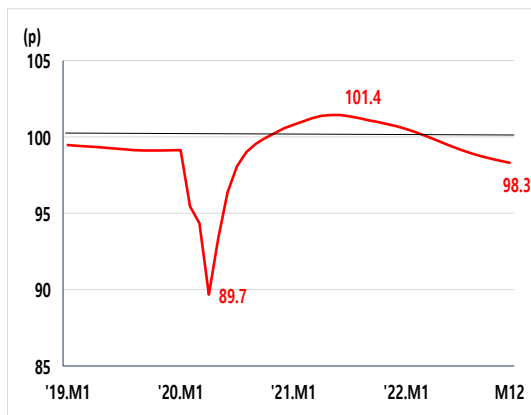
■ 시사점

글로벌 경기는 주요국 경제의 경기둔화 완화 기대와 신흥국의 안정된 성장세에 힘입어 회복세로 전환되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 역시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적극적인 대외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 대내 경기침체 극복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주요국의 경기 반등 기대감과 신흥국의 양호한 경제성장으로 세계 경기는 당초 예상보다 회복이 빨라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경기하방 리스크 역시 산재하는 만큼 대외 리스크가 국내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둘째**, 국내 경제의 대내외 복합불황 가능성이 우려되지만, 일각에서는 세계 경기 낙관론도 점차 제기되고 있어 정부·가계·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은 균형잡힌 시각을 통해 과도한 위기의식에 따른 자기실현적 위기(self-fulfilling crisis)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급격히 침체하고 있는 국내 수출 경기의 반등을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은 수출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 수출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지원을 시행해야 한다. **넷째**,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 둔화가 집중되는 올해 상반기에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세계 분절화(Fragmentation)에 따르는 국제교역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대외 여건 변화에 취약한 국내 경제에 파급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1. 개요

- **고물가 및 통화긴축 여파로 글로벌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글로벌 PMI가 반등하며 기존 예상보다 경기 회복세로 전환되는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도 대두되기 시작**
-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21년 5월 정점 이후 19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경기하방 압력 확대
 - 향후 경기 향방을 예고해주는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21년 5월 고점(101.4p) 기록 이후 하락세 전환
 - 이후 동 지수는 19개월 연속 하락해 2022년 12월에는 98.3p를 기록하면서 기준치인 100p를 하회
- 그러나, 올해 초 글로벌 종합 PMI가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남
 - 글로벌 종합 PMI(JP모건)는 작년 6월 53.5p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타났으나, 올해 1월 49.8p를 기록하며 전월대비 1.6p 상승
 - 특히, 서비스업 PMI는 2023년 1월 50.1p를 기록하면서 전월대비 2p 상승한 가운데 기준선(50p)을 상회
 - 제조업 PMI도 올해 1월 48.7p를 기록하면서 전월대비 0.4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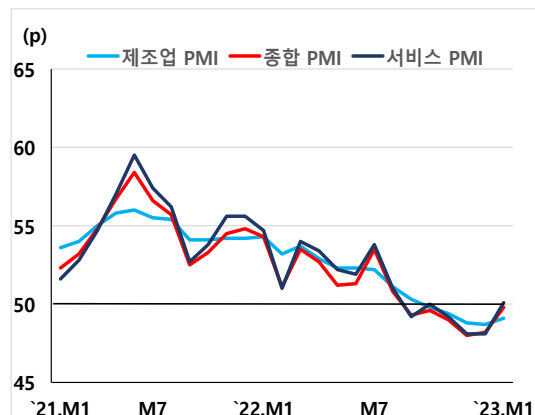
< OECD 경기선행지수 추이 >



자료 : OECD.

- 주1. 6~9개월 뒤의 경기 흐름을 예측
- 주2. 지수가 100p를 넘으면 경기 상승세, 100p를 하회하면 경기 하락세 예상.

< 글로벌 PMI (JP모건) 추이 >



자료 : Bloomberg.

- 주 : 수치가 50p를 넘는 경우 경기 확장, 50p 미만은 경기 위축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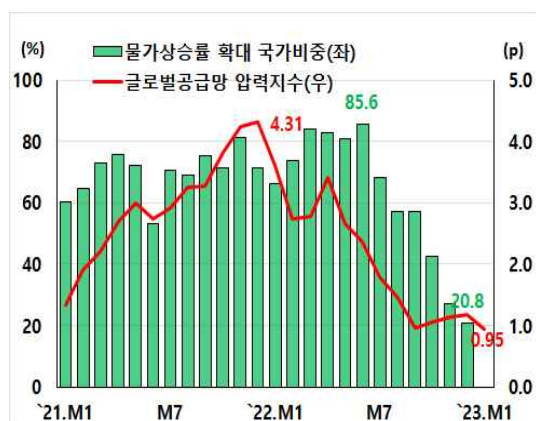
○ 세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 압력 완화와 인플레이 둔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의 리오프닝 정책과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으로 IMF가 세계 경제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경기 낙관론도 일각에서 제기

-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고물가 현상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공급망압력지수(Global Supply Chain Pressure Index)는 2021년 12월 4.31p 까지 급등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어 2023년 1월에는 0.95p까지 하락
 - 이전 달에 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이 확대되는 국가의 비중도 작년 6월 85.6%를 기록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12월 20.8% 기록¹⁾

- 주요 전망기관인 World Bank와 UN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종전대비 대폭 하향 조정했으나, IMF는 중국과 미국의 경기 반등 기대로 상향조정
 - World Bank와 UN은 지난 1월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각각 1.7%, 1.9%로 전망하며 종전 전망대비 1%p 이상 큰 폭의 하향조정
 - 그러나, IMF는 지난 1월 중국 리오프닝 효과 기대 및 미국의 연착륙 가능성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을 종전 전망대비 0.2%p 상향조정한 2.9%로 전망

○ 따라서, 본 보고서는 글로벌 주요국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본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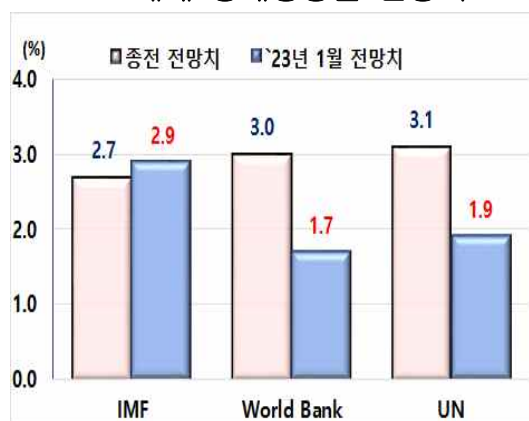
< 글로벌공급망압력지수 및 물가상승률 확대 국가 비중 추이 >



자료 : New York Fed, World Bank, 현대경제연구원.

주 : 물가상승률 확대국가 비중은 133개 국가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이 이전 달 대비 확대된 국가 비중을 의미.

< 주요기관의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



자료 : IMF, World Bank, UN.

주 : IMF 종전치는 '22.10월 전망, World Bank는 '22.6월 전망, UN은 '22.5월 전망.

1) World Bank의 'A Global Database of Inflation' 자료를 이용하여 133개 국가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y.o.y)이 전월 대비 상승한 국가들의 비중을 산출.

2. 주요국 경기 상황 점검

① 미국 : 견조한 노동시장 지속으로 경기 연착륙 가능성 대두

○ (현황) 고물가 압력에도 양호한 민간소비에 힘입어 주요 전망기관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장세가 나타났으나, 고강도 통화긴축으로 작년 말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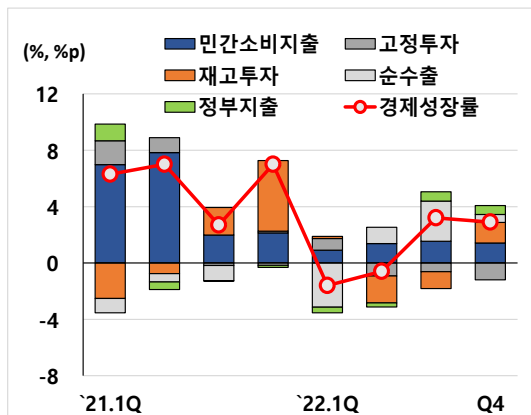
- 작년 미국 경제는 양호한 민간소비를 바탕으로 주요 전망기관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여줌

- 작년 민간소비 지출의 성장기여도는 매 분기 1%p 이상(전기비연율 기준)의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고정투자의 부진을 상쇄
- 2022년 연간성장률은 2.1%(잠정치)를 기록하며, 주요기관인 FED(0.5%, '22.12 전망), OECD(1.8%, '22.11), IMF(1.6%, '22.10)의 전망치를 상회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향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미 연준(Fed)의 정책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근원 서비스물가의 오름세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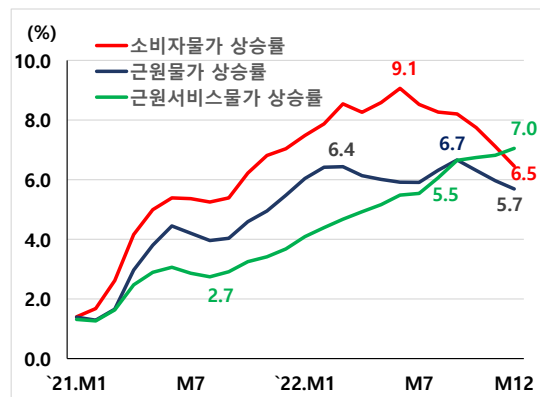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작년 6월 9.1%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2월에는 6.5%로 하락
- 12월 근원 물가상승률도 5.7%를 기록해, 9월(6.7%) 정점 대비 1.0%p 하락
-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미 연준의 정책목표치인 2%를 여전히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근원 서비스물가는 오름세 유지

< 경제성장률과 부문별 기여도 >



자료 : BEA.

< 주요 물가지수 추이 >



자료 : FRED.

주 : 전년동월대비.

- 한편,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통화 정책의 영향으로 작년 11월부터 생산과 소비가 감소세로 전환되어 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 개인소비지출(PCE)과 소매판매 증가율(전월대비)은 작년 11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소비 위축이 나타나기 시작
- 산업생산 증가율도 지난 11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ISM 제조업지수 역시 기준선(50p)을 하회하면서 생산도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망) 통화긴축 여파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본격적인 경기침체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견조한 노동시장에 힘입어 경기 연착륙 가능성도 상존

- 실질금리(기준금리-소비자물가 상승률)가 양(+)으로 전환되는 올해 2분기부터 통화긴축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미국 경기침체 폭이 확대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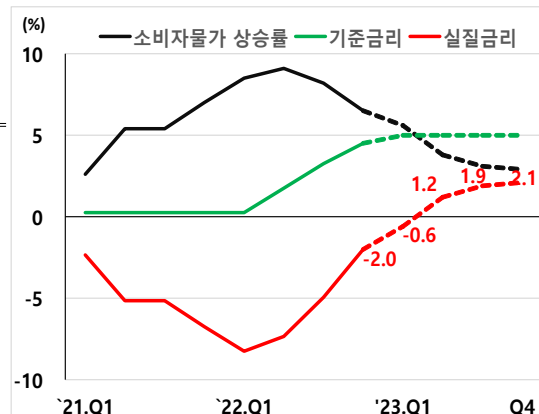
- IB 전망(1월 기준, 중간치)에 의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분기 말 5.6%, 2분기 말 3.8%, 3분기 말 3.1%, 4분기 말 2.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기준금리는 1분기 이후 5%를 기록한 이후 동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실질금리(기준금리-소비자물가 상승률)는 1분기까지 음(-)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2분기부터는 양(+)으로 전환될 가능성
-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2분기부터 긴축통화 정책의 효과가 심화되면서 경기침체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주요 소비 및 생산 지표 >

구분	(전월대비 %, p)				
	'21. 6월	'21. 12월	'22. 10월	'22. 11월	'22. 12월
개인소비지출	1.2	-0.2	0.8	-0.1	-0.2
소매판매	0.5	-1.3	1.0	-1.1	-1.2
산업생산	0.4	-0.2	0.0	-0.6	-0.7
ISM 제조업지수	61.1	58.6	50.0	49.0	48.4

자료 : FRED, Bloomberg.

<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실질금리 전망 >



자료 : FRED, Bloomberg, 현대경제연구원.
 주1. 실질금리는 기준금리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차이
 주2. 2023년 이후 전망치는 IB의 1월 전망치 중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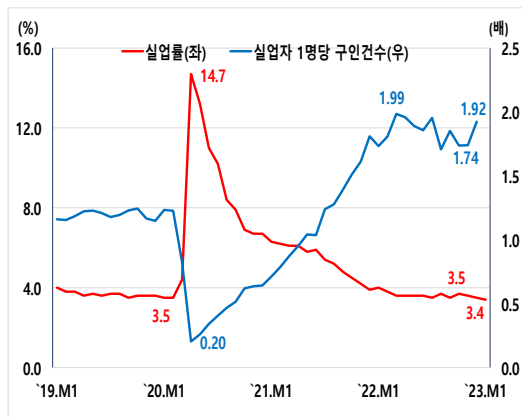
- 그러나, 타이트(tight)하고 견조한 노동시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미국 경제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 상존

- 올해 1월 실업률은 3.4%로 1969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실업자 1명당 구인건수는 2022년 12월 1.92배로 전월(1.74배)대비 큰 폭 상승
- 통화긴축 여파로 노동수요가 위축되어 향후 실업률은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견조한 노동시장 흐름과 타이트한 노동수급 여건에 힘입어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점증

- 또한, 과거 위기 대비 가계의 양호한 부채 여건도 고금리 충격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일정 부분 상쇄시킬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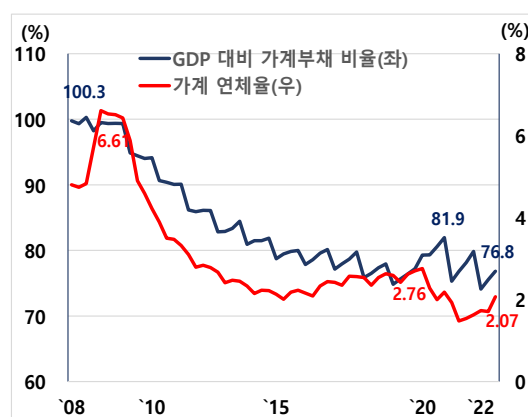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가계 연체율은 최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여전히 금융위기 시기와 코로나19 위기 이전 대비 양호한 수준
- 가계의 양호한 재무여건이 고금리 충격으로 인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 시킴으로써 소비 위축을 일정 부분 제한할 가능성

< 실업자 1명당 구인건수 및 실업률 추이 >



자료 : FRED.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및 가계 연체율 추이 >



자료 : FRED.

- 경기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나, 견조한 노동시장과 양호한 가계의 재무여건을 바탕으로 1%를 상회하는 성장률 기록할 가능성 존재

< 주요 기관 및 투자은행(IB)의 미국 경제 전망(%) >

구분	IMF ('23.1)	세계은행 ('23.1)	OECD ('22.11)	FED ('22.12)	UN ('23.1)	IB 평균 ('23.2)
2023(E)	1.4	0.5	0.5	0.5	0.4	0.5

자료 : 각 기관 보도자료 및 Bloomberg 등 참조

② 유로존 : 경기 반등 기대감 속 역성장 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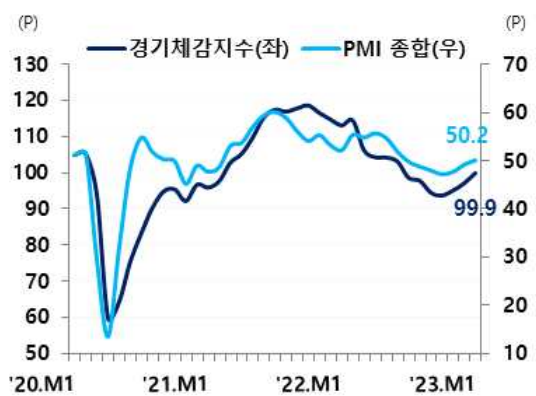
- (현황) 유로존 경제는 민간소비와 순수출이 악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경기 선행 및 동행지표가 반등하면서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판단
- 유로존 경제는 2022년 하반기 민간소비의 기여도가 둔화된 가운데 순수출이 크게 악화되면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지속
 - 유로존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2022년 3분기 2.3% 성장한 이후 4분기 1.9%(속보치 기준)를 기록하며 성장 둔화 흐름이 지속
 - 부문별로는 3분기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0.99%p로 크게 악화되었으며, 2022년 상반기 성장을 견인한 민간소비 또한 둔화된(0.93%p) 모습
- 한편, 최근 경기체감지수 및 PMI 지수가 개선세를 나타내면서 실물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로존 경기의 반등 가능성이 기대
 - 현재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경기체감지수는 지난 10월 93.7p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여 2023년 1월 99.9p를 기록
 - 향후 경기를 판단하는 PMI 지수 또한 지난 10월 저점(47.3p)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2023년 1월 현재 50.2p로 기준선(50p)을 상회
 - 2022년 하반기 이후 유로존의 성장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주요 경기 동행 및 선행 지표의 흐름을 고려할 때 향후 경기 반등이 기대

< 경제성장률 및 기여도 >



자료 : Eurostat.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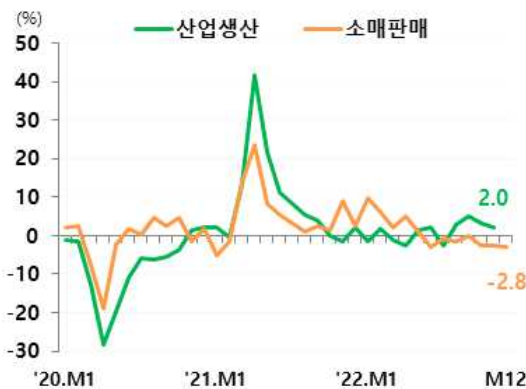
< 경기체감지수 및 PMI 종합 >



자료 : Eurostat,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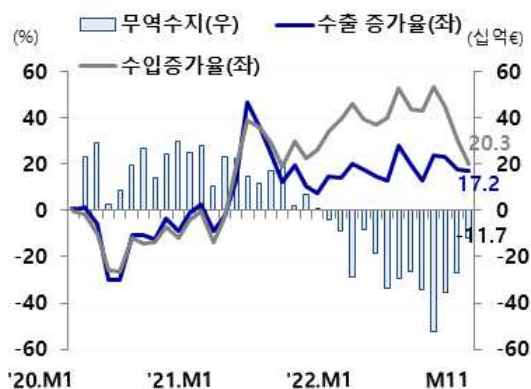
- 전산업생산은 에너지와 전기·가스 공급 등 분야의 생산이 크게 악화되었으나, 자본재 및 비내구소비재의 생산 증가에 힘입어 상승세를 유지
 - 전산업생산은 2022년 상반기 평균 0.1% 증가에 그쳤으나, 8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11월 2.0%, 하반기(7~11월) 평균 2.2%의 상승세를 기록
 - 부문별로는 자본재 및 비내구소비재 생산이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에너지 및 전기·가스 등 공급 부문의 생산이 11월 각각 -10.7%, -11.9%로 감소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전산업생산의 증가세를 제한
- 소매판매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소비자신뢰지수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한편, 동 지수가 4개월 연속 개선되면서 소비 반등 가능성도 상존
 - 소매판매는 2022년 상반기 평균 3.6%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6월 이후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어 12월 -2.8%, 하반기(7~12월) 평균 -1.6%를 기록
 - 특히, 부문별로는 식음료 및 담배 판매 부문에서 8월 이후 감소세가 심화되면서 12월 기준 -6.9%를 기록
 - 한편, 소비자의 경기 인식과 기대를 나타내는 소비자신뢰지수는 지난 9월 역대 최저치(-28.7p)까지 하락한 이후 개선세를 지속하여 1월 -20.9p 수준
- 대외부문의 경우 수입 증가세가 수출 증가세를 상회하여 무역수지 적자 흐름이 13개월 연속 지속되는 한편, 최근 적자 규모는 축소되고 있는 상황
 - 수입이 수출의 증가세를 상회하면서 2022년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가 -1,446억 유로까지 확대되었으나, 지난 9월 이후 적자 규모가 3개월 연속 축소

<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증가율 >



자료 : Eurostat.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 수출입 증가율 및 무역수지 >



자료 : Eurostat.
주 : 수출입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전망) 2023년 유로존 경제는 에너지 위기 및 고물가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우려되었던 역성장을 모면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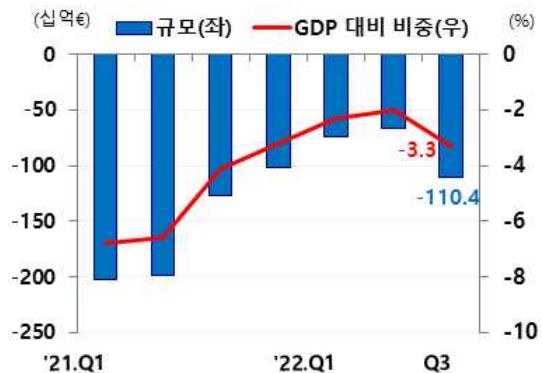
- 유로존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꼽히던 에너지 위기와 고물가 현상이 최근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 러시아의 對유럽 가스공급 중단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가능성이 우려되었으나, 최근 천연가스 가격 하락²⁾, 온난한 기후 등으로 리스크가 완화
 - 가스 가격이 안정화됨에 따라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던 에너지 부문 물가가 크게 둔화되고, 이에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난 1월 8.5%로 둔화
- 한편, 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확대된 점 등 하방 요인도 상존
 - 코로나19 대응에 이어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2022년 2분기 -2.0%에서 3분기 -3.3%로 악화

< 소비자물가 및 에너지물가 상승률 >



자료 : Eurostat.

< 재정적자 규모 및 비중 >



자료 : Eurostat.

- 이와 같은 경기 상·하방 요인을 고려할 때, 2023년 유로존 경제는 우려되었던 역성장을 피하는 한편, 1% 미만의 제한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기관 및 투자은행(IB)의 유로존 경제 전망(%) >

구분	IMF ('23.1)	세계은행 ('23.1)	OECD ('22.11)	ECB ('22.12)	EC ('22.11)	IB 평균 ('23.1)
2023(E)	0.7	0.0	0.5	0.5	0.3	0.1

자료 : IMF, 세계은행, OECD, ECB, EC, Bloomberg 등 참조.

2) 유럽 천연가스 가격(TTF 선물)은 2022년 8월 26일 €339.2/Mwh까지 상승한 이후 2023년 1월 26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최저치인 €54.8/Mwh까지 하락하였음.

③ 일본 : 내수 회복 지속으로 1%대 중반 성장 기대

○ (현황) 일본경제는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등에 따라 민간소비를 포함한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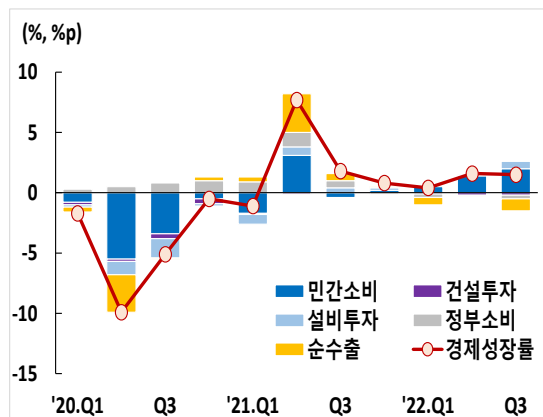
- 2022년 일본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회복

-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전년동기대비)를 보면 민간소비가 2022년 1분기 0.5%p, 2분기 1.4%p, 3분기 2.0%p로 동기간 경제성장률 0.4%, 1.6%, 1.5%와 유사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
-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 역시 2022년 1분기에는 0.0%p였으나, 2~3분기에는 각각 0.1%p, 0.6%p로 일본경제 회복에 기여

- 단, 경기선행지수와 경기동행지수 모두 최근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 경기선행지수는 2022년 4월 102.4p로 최측근 정점을 기록한 후 11월에는 97.4p까지 하락
- 경기동행지수는 2022년 8월 101.3p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11월에는 99.3p 기록

<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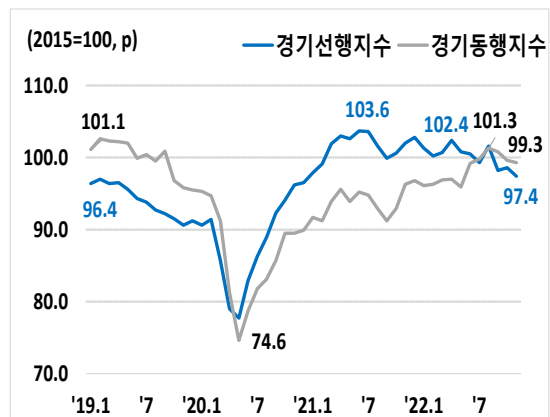


자료 : 日本 内閣府.

주1. 2022년 3분기는 속보치 기준

주2. 공공수요는 정부소비, 공적고정자본형성, 공적재고의 합을 의미.

< 경기 선행 및 동행지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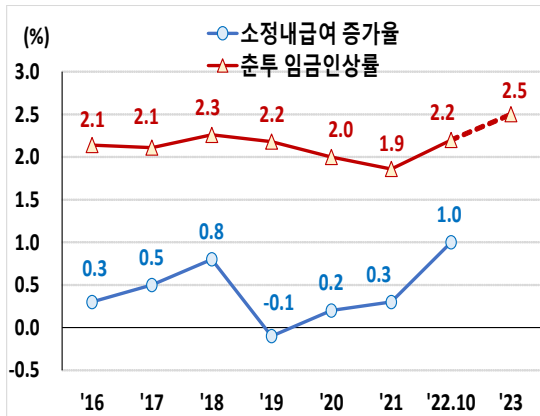
자료 : 日本 内閣府.

○ (전망) 임금 인상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의한 소비 확대, 경제주체들의 심리 회복 등으로 1% 중반대 성장 예상

- 임금 인상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의한 소비 확대 기대

- 2022년부터 일본의 춘투임금 상승률이 전년도를 상회하여 소정내급여 역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3년에도 전년대비 2% 이상의 춘투임금 인상 예상
- 중국 및 한국 관광객 증가로 2023년에는 총 2,5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의 소비 규모가 적어도 3조엔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춘투임금 인상률 및 소정내급여 증가율 추이 >



자료 : 日本 厚生労働省, 連合.

주 : 춘투임금인상률은 매 연도 기준, 2023년은 전망치.

< 방일 외국인 관광객 소비 전망 >

기본 시나리오	엔/달러 환율 20엔 하락시 (엔고)	엔/달러 환율 20엔 하락(엔고)과 세계경기 침체시
3.7조엔	3.2조엔	3.0조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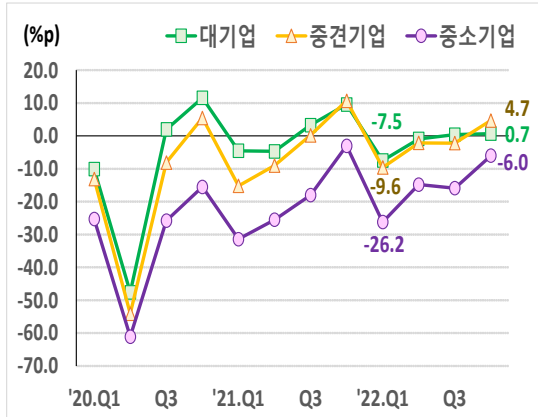
자료 : 大和総研.

주 : 2023년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 2,500만명 기준.

- 가계 및 기업의 심리 개선으로 내수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 기대

- 법인기업 업황판단 BSI의 경우 대기업은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중견기업은 3분기부터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며, 중소기업은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개선 중
- 소비자태도지수 역시 지난 2022년 11월에 최측근 저점을 기록한 후 2023년 1월까지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등 개선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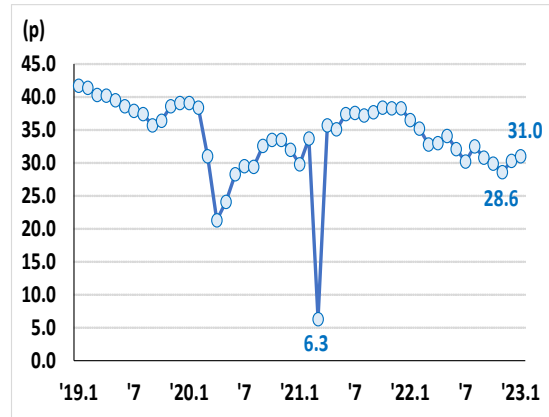
< 법인기업 업황판단 BSI 추이 >



자료 : 日本 日本銀行.

주 : 전기비 대비 상승 비중에서 하락 비중을 뺀 값.

< 소비자태도지수 추이 >



자료 : 日本 内閣府.

주 : 2인 이상 가구, 계절조정치.

- 2023년 일본경제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외수 부문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

- 일본 내 주요 기관들은 2023년 일본경제의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한 내수 성장기여도가 1%p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
- 다만, 외수 부문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경제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

< 일본 주요 기관들의 부분별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전망 >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내수 기여도(%p)	2.1	1.2	1.0
민간	2.0	1.0	0.8
공공	0.1	0.2	0.2
외수 기여도(%p)	-0.5	-0.1	0.0
경제성장률(%)	1.61	1.06	0.96

자료 : 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 ESPフォーキャスト調査 2023年 1月 16日.

주 :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회계연도 기준 당해년 2분기부터 다음 해 1분기까지임.

④ 중국 : 소비의 '펜트업 효과' 예상

○ (현황) 2022년 중국경제는 글로벌 수요 감소, 제로 코로나 정책 강행 등 대내외 하방압력으로 상반기 경기는 급감했으나,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 대응에 힘입어 소폭 회복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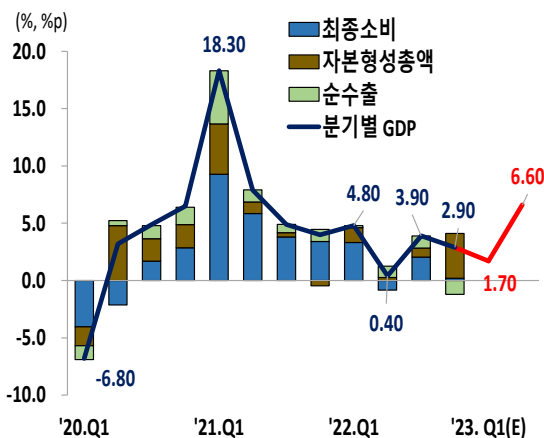
- 2022년 중국경제는 완만한 "V"자형 성장이 진행

- 202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상하이 봉쇄 등 강도 높은 제로 코로나 정책 시행 여파로 1분기 4.8%에서 2분기 0.4%로 급락
- 이후 3분기, 4분기는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 대응으로 각각 3.9%, 2.9%로 회복하며 완만한 "V"자형 성장 형태를 보임
- 이에 따라, 지난해 제시한 성장목표치 5.5%에 크게 못 미치는 3.0%를 기록

- 투자 주도의 성장 속, 글로벌 수요 감소로 소비와 수출 약화가 지속

- 2022년 투자는 연초부터 진행된 인프라 및 부동산 관련 경기 부양 정책 대응 효과로 5%대 성장을 방어
- 다만, 이러한 정책 효과가 미국의 금리 인상, 제로 코로나 정책 등 대내외 하방압력의 영향으로 상쇄되며 소비는 연간 0.2%로 감소했으며, 수출도 연간 한 자릿수 성장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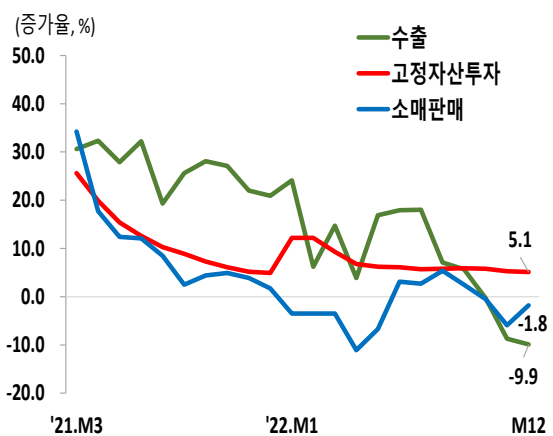
<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 중국국기통계국.

주 : '23년 1, 2분기 수치는 8개 IB('22년 12월 기준)의 전망치 평균 반영치.

< 중국 내외수 시장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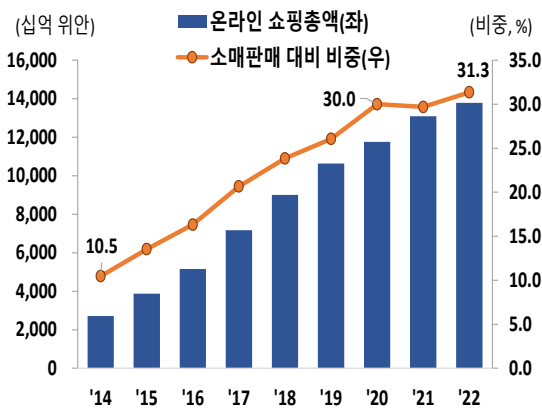


자료 : CEIC.

주1.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누적치 기준
주2. 수출은 USD 기준.

- 중국 소매판매의 30%를 차지하는 온라인 소비가 점차 회복되면서 올해 중국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2022년 중국 소매판매총액 대비 온라인 쇼핑 비중(网上零售, E-Retail)은 31.3%로 3년 연속 30%대 비중을 유지
 - 2021년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阿里巴巴), 텐센트(腾讯), 징둥(京东) 등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기조로 전환 중
- 다만, 중국 GDP의 약 25~30%³⁾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은 2021년恒大(Evergrande) 사태 발생 이후 침체국면이 장기화하며 중국경제의 하방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
 - 2022년 12월 기준, 70개 중대형 도시 중 전년대비 신규 주택가격이 상승 및 하락하는 도시 수는 각각 16개(약 23%), 53개(약 76%)로 조사됨
 - 특히, 2022년 4월 이후 9개월 연속 신규 주택가격 상승 도시 수가 전체 도시의 절반인 35개 이하로 떨어지는 등 부동산 위축 국면이 지속
 - 중국지수연구원(中国指数研究院)에서 발표하는 중국 100대 도시의 평균주택가격(위안/㎡) 증가율도 2023년 1월 -0.03%로 약 8년 만에 2개월 연속 감소 양상이 나타남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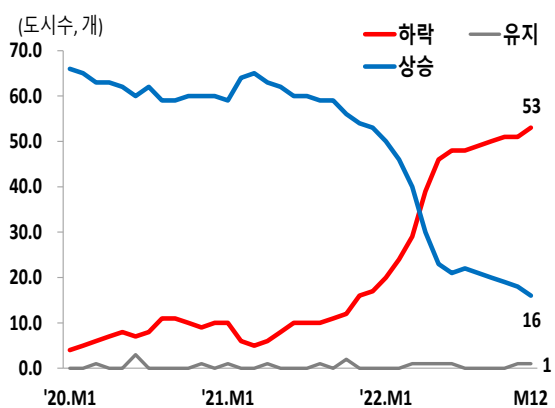
< 중국 온라인 소비 현황 >



자료 : CEIC.

주 : 온라인 쇼핑(网上零售, E-Retail)은 전자상거래 등 B2C/C2C 의미.

< 중국 신규 주택가격 변동 추이 >



자료 : CEIC.

주 : 중국 전체 70개 중대형 도시 대상 신규 주택가격 변동(상승,유지,하락) 도시 수.

3) Tianlei Huang(2022.1.12.), "China's looming property crisis threatens economic stability",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에서 제시한 중국의 GDP 대비 부동산 및 관련 산업 전체 비중 추정치를 의미.
 4) 100대 도시의 평균주택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시기는 2014년 10월~2015년 7월로 당시 중국경제가 7%대 성장의 뉴노멀 시기로 본격 진입하면서 부동산 버블붕괴 우려 등으로 수요가 위축되었음.

- (전망) 2023년 중국경제는 상반기는 ‘펜트업 효과(Pent-up Effect)⁵⁾’에 따른 소비 반등이 예상되나, 하반기부터 코로나 재확산, 부동산 회복 지연 등 하방압력이 재차 발생하며 ‘역 U’ 자형 성장이 예상됨
- 정책적으로는 ‘안정 속 성장(穩中求進)’을 위한 내수 안정화 및 디지털 산업 중심의 정책 집중이 예상됨
 - 2022년 12월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에서 △내수확대 △산업시스템 현대화 △국영 및 민간 경제 상생 △외자유치 및 대외개방 △금융 리스크 방지 등 2023년을 겨냥한 5가지 주요 경제전략이 제시됨
 - 코로나 양상이 다소 진정되는 시기에 열릴 예정인 올 3월 양회(兩會)에서는 다소 변화된 재정 및 통화정책 방안발표가 예상되며 미-중 기술 경쟁 여파로 디지털 및 혁신 분야의 과학기술 R&D 정책지원이 강화될 전망
- 아울러 중국경제는 소비의 ‘펜트업 효과(Pent-up Effect)’로 인해 올해 4~5%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코로나 이슈 재부상, 부동산 리스크에 따른 은행발 부실 확산 등 금융리스크 발생 가능성도 상존
 - 세계은행, OECD, ADB 등 주요 기관들은 2023년 중국경제의 4%대 성장을 예견하고 있으며, IMF 및 중국사회과학원은 소비 폭증 기대감으로 5% 이상을 전망
 - 다만, 부동산 리스크 심화로 인한 은행 부실 채권 등 금융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확대재정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통화정책도 美 금리인상 여파에 따른 경기 후퇴 방어를 위한 유동성 확보 기조가 유지될 전망

< 주요기관의 중국경제 전망 >

(단위 : %)

구분	IMF ('23.1)	세계은행 ('23.1)	OECD ('22.11)	ADB ('22.12)	중국사회과학원 ('23.1)	8개 IB 평균 ('22.12)
2023(E)	5.2	4.3	4.6	4.3	6.0	4.8
2024(E)	4.5	5.0	4.1	-	-	5.3

자료 : IMF, 세계은행, OECD, ADB, 중국사회과학원 등 기관 및 국제금융센터 “Consensus Forecast” 참조

주 : 중국사회과학원 전망은 ‘中国科学院预测科学研究中心’ 발표 수치 기준.

5) 펜트업 효과란 억눌렸던 수요가 급속도로 살아나는 현상으로 보통 외부 요인으로 인해 수요가 억제되었다가 그 요인이 해소되면서 수요가 분출하는 상황을 말함.

⑤ 인도 : 내수 중심의 안정적인 성장세

○ (현황) **고물가, 고금리, 수출 부진 등의 여파로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었으나 전반적인 대내 여건의 개선 흐름이 나타나는 중**

- 인도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2022년 3분기 6.3%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

·인도는 2022년 3분기에 2분기(13.5%)보다 낮은 6.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

·2분기 경제성장률에 크게 기여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금리 인상,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여파로 감소한 영향

·하지만 2022년 3분기 민간최종소비지출의 성장기여도는 5.5%p로 여전히 상당한 수준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견조한 내수가 성장을 뒷받침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됨

- 산업생산은 2022년 하반기 들어 둔화세를 이어가다 최근에 반등

· 전산업생산 및 제조업생산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022년 5~6월 두 자릿수까지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였으나, 8월과 10월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등 하반기 들어 둔화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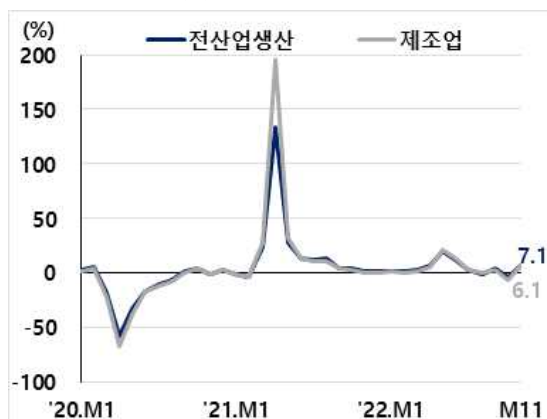
· 하지만 11월 전산업생산 및 제조업생산은 각각 7.1%, 6.1% 증가하며 반등

< 경제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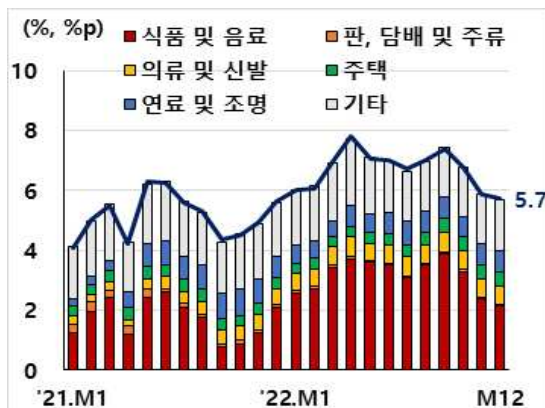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 전산업 및 제조업생산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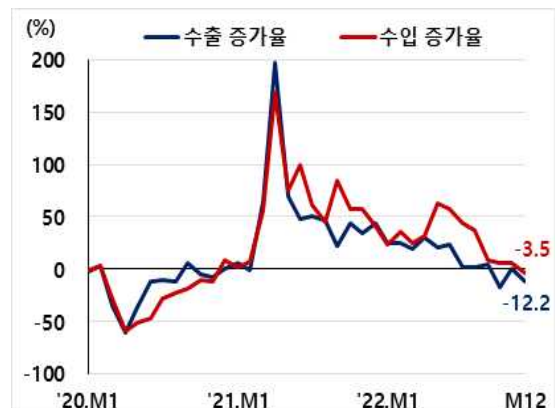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품 및 음료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최근 들어 비교적 빠르게 둔화
 -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7%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 품목 중 식품 및 음료(2022년 기여도 3.1%p)가 소비자물가 상승세의 상당 부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최근 들어 식품 및 음료 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2022년 11~12월 소비자물가는 각각 5.9%, 5.7% 상승하며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
- 이와 같은 소비자물가 상승세의 둔화로 인도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는 완화되어 최종 금리는 6.5%에 이를 가능성이 큼
 - 2022년 중 인도의 기준금리는 5번 인상되어 현재 6.25% 수준
 - ※ 인도 기준금리(%): ('22.M5) 4.4 → (M6) 4.9 → (M8) 5.4 → (M9) 5.9 → (M12) 6.25
 - 인도 중앙은행의 목표 물가 범위(2~6%)를 고려하면 2월에 기준금리를 6.5%로 인상한 이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한편, 수출입은 모두 빠르게 둔화한 가운데 무역수지는 적자 흐름을 지속
 - 2022년 상반기 수출 및 수입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각각 24.2%, 39.2%를 기록한 반면, 하반기에는 빠르게 둔화하여 각각 -3.3%, 16.2%를 기록
 - 특히, 하반기 수출의 하락세는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수요 위축의 영향
 - 수출입 둔화세에도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여전히 상회하며 무역수지는 적자 흐름을 지속
 - ※ 인도 무역수지(십억 달러): ('22.Q1) -56.8 → (Q2) -70.6 → (Q3) -83.7 → (Q4) -74.6

<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품목별 기여도 >



자료 : Bloomberg, 인도 통계청(MOSPI).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 수출입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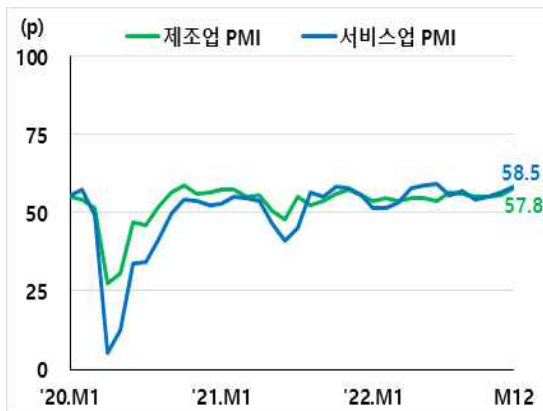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 (전망) 글로벌 경기둔화 속에서도 방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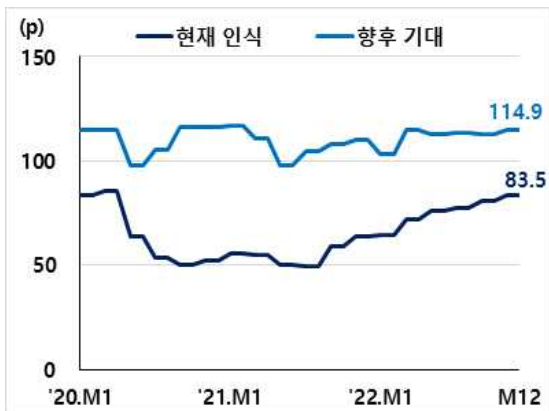
-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모두 50p를 상회하며 경기 확장 국면임을 시사
 - 12월 제조업 PMI는 2020년 10월 이후 최고치인 57.8p를 기록, 서비스업 PMI는 58.5p를 기록하며 17개월 연속 50p를 상회
- 소비자신뢰지수 또한 개선세를 지속하며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관한 판단이 낙관적임을 암시
 - 12월 소비자신뢰지수-현재 인식은 83.5p로 아직 비관적 견해가 우세하지만, 2021년 9월부터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100p를 상회할 가능성이 큼
 - 한편, 12월 소비자신뢰지수-향후 기대는 114.9p를 기록하며 18개월 연속 100p를 상회

<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



자료 : Bloomberg.
주 : 50p 기준.

< 소비자신뢰지수 >



자료 : 인도 중앙은행(RBI).
주 : 100p 기준.

- 인도는 강한 내수가 수출 부진을 상쇄하며 세계 주요국에 비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인도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6% 수준으로 2022년 경제성장률(IMF 추정치 6.8%)보다 낮지만, 여타 국가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 >

구분	IMF('23.1)	World Bank('23.1)	OECD('22.11)
경제성장률(%)	6.1	6.6	5.7

자료 : IMF, World Bank, OECD.

주 :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3년 2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의 경제성장률임(FY2023/24).

⑥ 베트남 : 경기부양책 등으로 6% 내외 수준의 성장 기대

○ (현황) 2022년 베트남 경제는 성장률은 기저효과, 코로나19 안정화 및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르는 서비스업 회복 등으로 급반등했으나, 제조업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이 감소하는 등 하방 리스크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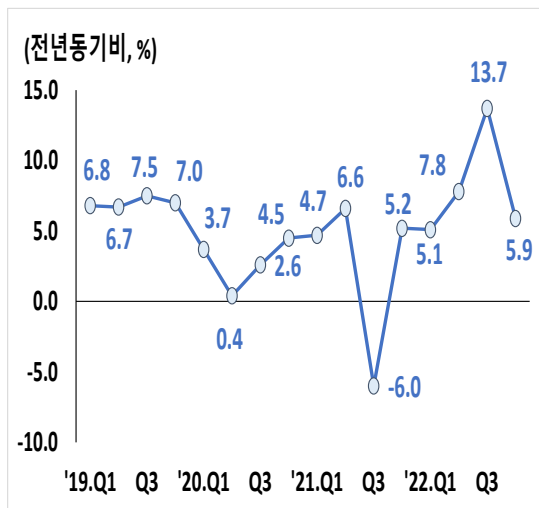
- 2022년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안정화와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르는 서비스업 회복으로 급반등

- 베트남 경제는 2021년 3분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후 회복세로 전환
- 2022년에는 2021년 2.6% 대비 약 5.4%p나 높은 8.0%의 성장률을 기록
- 이 같은 고성장은 전년 저성장 대비 기저효과가 컸고, 코로나19 안정화와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르는 서비스업 회복 등이 원인으로 작용⁶⁾

- 2022년 하반기 들어 제조업 생산 증가세가 크게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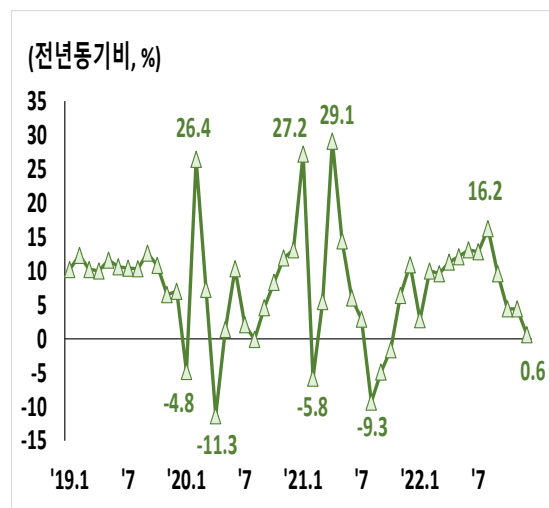
- 베트남 제조업 생산지수 상승률(전년동기비)은 지난 2022년 8월 16.2%로 정점에 달한 후 12월에는 0.6%까지 축소

<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 Vietnam, General Statistics Office.

< 제조업 생산지수 추이 >



자료 : Vietnam, General Statistics Office.

6)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3분기까지 베트남 방문 외국인 수는 약 187만 명으로 이는 전년동기비 1,600% 이상 증가한 수준임.

- (전망) 2023년 베트남 경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대응,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르는 파급효과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나 산적한 대내외 리스크로 인해 6% 내외 수준으로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경제정책 추진으로 투자 및 생산 증가와 같은 부양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개인에 대한 154억 달러 규모의 지원 시행령 발표
 - 또한, 고속도로와 항만 및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 사회경제회복 프로그램 실시 등 강력한 경제정책을 추진할 예정
-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의한 서비스업 생산 증가, 소비 확대 등 파급효과 기대
 - 2025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500만명 유치를 통해 관광수입의 GDP 기여율을 14%까지 확대하려는 계획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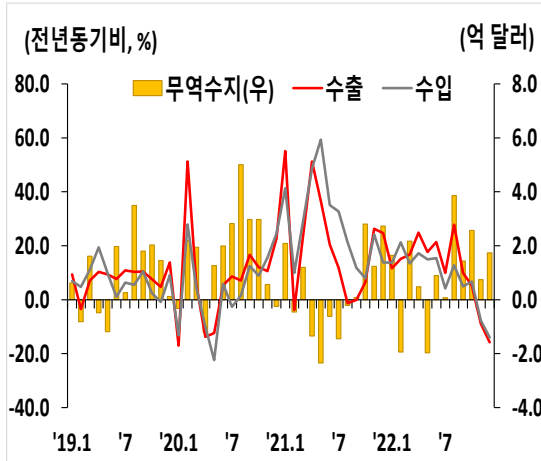
< 베트남 정부의 시나리오별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 >

시나리오		2023년 전망치
긍정적 시나리오	연간 물가상승률 4% 미만 무역수지 흑자	6.5%≤
기본 시나리오	중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세계 경제 단기 침체	6.3~6.5%
부정적 시나리오	연간 물가상승률 4.5% 미만 세계 경제 중장기 침체	5.5~6.0%

자료 : 베트남 정부.

- 단, 2022년 말부터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외수 불안이 확대
 - 글로벌 경기둔화와 더불어 베트남의 수출도 2022년 11월부터 전년동기비 마이너스 증가율로 전환, 향후 무역수지 흑자 유지가 고성장의 관건
- 고물가·고금리 역시 베트남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요인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10월~12월 3개월 연속 정부 목표치 4%를 상회
 - 중앙은행 기준금리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인 6%로 상승해 경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확대

< 수출입 증가율 및 무역수지 추이 >



자료 : Vietnam, General Statistics Office.

<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기준금리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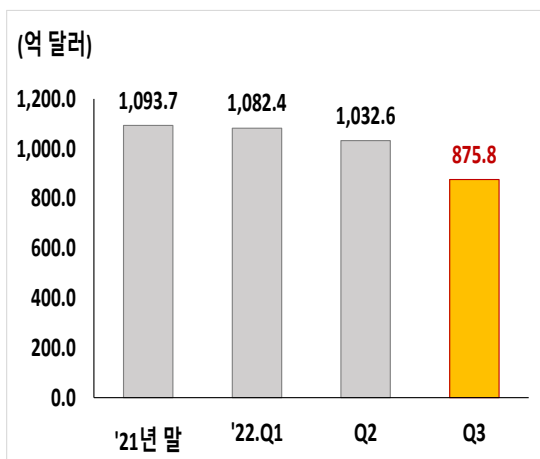
자료 : Vietnam, General Statistics Office.

주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외환보유고 감소, 환율 불안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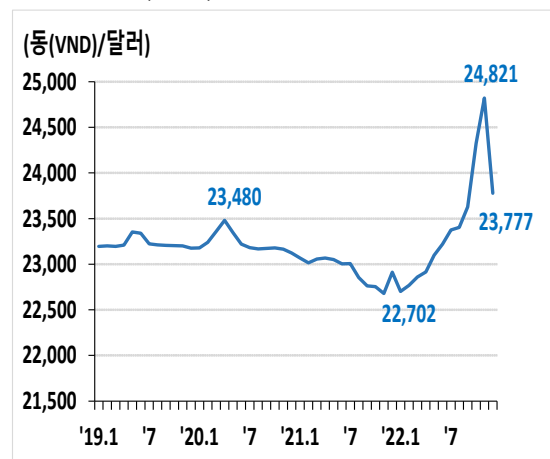
- 2021년 말 약 1,094억 달러에서 2022년 9월 말에는 약 876억 달러로 약 20% 축소
- 동(VND)/달러 월평균 환율은 지난 2022년 11월 2만 4,821동/달러까지 상승한 후 12월에는 2만 3,777동/달러로 하락해 최근 안정세를 보이나, 미국 통화정책 방향에 따라 불안정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큼

< 외환보유고 추이 >



자료 : The State Bank of Vietnam.

< 동(VND)/달러 환율 추이 >



자료 : The State Bank of Vietnam.

3. 시사점

- 글로벌 경기는 주요국 경제의 경기둔화 완화 기대와 신흥국의 안정된 성장세에 힘입어 경기 회복세로 전환되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 역시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적극적인 대외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 대내 경기침체 극복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주요국의 경기 반등 기대감과 신흥국의 양호한 경제성장으로 세계 경기는 당초 예상보다 회복이 빨라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 역시 산재하는 만큼 대외 리스크가 국내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 미국의 연착륙 가능성, 중국의 리오프닝 정책 효과, 유로존의 경기 반등 기대, 신흥국 경기 안정 등으로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빨라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단,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선진국과 남유럽 국가(PICGS)의 재정위기 가능성, 신흥국 금융불안 우려 등 대외 하방 리스크는 여전히 산적해 있는 만큼 대외 리스크를 철저히 모니터링해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

둘째, 국내 경제의 대내외 복합불황 가능성이 우려되지만, 일각에서는 세계 경기 낙관론도 점차 제기되고 있어 정부·가계·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은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 과도한 위기의식에 따른 자기실현적 위기(self-fulfilling crisis)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국내 경제는 작년 4분기 역성장 이후 침체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나, 세계 경제에 대한 비관론만 일색이었던 작년과는 달리 최근에는 글로벌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대외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시그널도 포착되기 시작

- 비관적 전망만 견지하는 경우 과도한 경제위기에 대한 의식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실제 경제 펀더멘털보다 더 큰 위기 상황으로 몰고가는 자기실현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
- 정부와 민간은 과도한 위기의식에 따른 자기실현적 위기는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리더십을 제대로 작동시킴으로써 공공 부문의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긴급

셋째, 급격히 침체하고 있는 국내 수출 경기의 반등을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은 총력을 펼쳐 수출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지원을 시행해야 한다.

- 작년부터 급강하하고 있는 수출 경기의 개선을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현재 부진 중인 주력 수출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모색해 수출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
- 특히, 대외 리스크에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의 실적 악화 및 도산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 및 무역보험 확대 등의 정책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는 급변하고 있는 교역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간 전략적 협업을 강화해 주요 수출 경쟁국 대비 국내 기술 경쟁력의 우위를 선점해야 하며, 과도한 對 중국 수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해외시장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모색하는 등 수출 다변화 노력이 절실

넷째,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 둔화가 집중되는 올해 상반기에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 글로벌 및 국내 경기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기 둔화가 집중되는 올해 상반기에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통화 및 금융 정책은 운영의 묘를 발휘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부동산 및 주식시장의 침체로 가계의 소비심리가 급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천 가능한 정책 조치도 병행되어야 함

다섯째, 세계 분절화(Fragmentation)에 따르는 국제 교역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함으로써 대외 여건 변화에 취약한 국내 경제에 파급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 분절화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의 구조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이 긴요함
- 무엇보다 반도체, 배터리 등 국내 주력산업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이 시급하며 신성장 동력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실시해 국내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함 **HRI**

미 국 : 이 형 석 연구 위원 (2072-6247, walden0230@hri.co.kr)
유 로 존 : 신 지 영 선임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
일 본 : 이 부 형 이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중 국 : 한 재 진 연구 위원 (2072-6225, hzz72@hri.co.kr)
인 도 : 노 시 연 선임연구원 (2072-6248, syroh@hri.co.kr)
베 트 남 : 이 부 형 이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